

숨겨진 비밀 뒤에

숨겨진 비밀 뒤에

발행 | 2025년 9월 13일

저자 | 자몽 & 쿠팡

펴낸이 | 한건희

펴낸곳 | 주식회사 부크크

출판사등록 | 2014.07.15(제2014-16호)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SK트윈타워 A동 305호

전화 | 1670-8316

이메일 | info@bookk.co.kr

ISBN | 979-11-12-00000-0

www.bookk.co.kr

© 자몽 & 쿠팡 2025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숨겨진 비밀 뒤에

자몽 & 쿠밍 지음

CONTENT

머리말 5

- 제 1화 이야기의 시작 6
- 제 2화 새로운 곳으로 9
- 제 3화 평화로운 이곳에서 12
- 제 4화 감나무 아래에서 15
- 제 5화 방문자 18
- 제 6화 불안한 마음 23
- 제 7화 첫 만남 26
- 제 8화 비밀은 무엇? 32
- 제 9화 민송이와의 우정 35
- 제 10화 알게 된 진실 37
- 제 11화 대면 43
- 제 12화 이제는 안녕 49
- 제 13화 새로운 시작 51

가족책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가족책 행사를 통해
책 만들기의 즐거움, 설레임, 그리고 고단함과 많은 노력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층 더 책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더욱더 많은 가족들이 가족책 만들기에 함께 참여하여
책읽는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삼화에 사심을 담아 그리고 싶었는데 시간관계로 혼자 다
그리지 못하고 채색도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 털선이네요...
다음에 제대로 그리는 날이 있으면 좋겠네요.

2025년 9월 어느 선선한 날에

자몽과 쿠밍 올림

제1화 이야기의 시작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이었다. 7월의 어느 날, 장마비는 하루 종일 내리고 있었다. 오후 5시였지만 밖은 어둑어둑했고 가끔씩 천둥 번개가 치는 이상한 날이었다. 우리는 혼자 책상에 앉아서 수학 문제집을 펴놓고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과과광" 다시 한번 천둥 소리가 멀리에서 들려왔다.

'으... 무서워...!'

우리는 무섭고 불편한 마음이 들어 미간을 찡그렸다. 오늘은 왠지 기분이 축 처지는 그런 날이었다. 우리에게 다

른 날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안방에서 엄마와 아빠의 말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 생겼나? 엄마와 아빠는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다.

"아... 몰라 몰라.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우리는 이어폰을 찾아 핸드폰으로 노래를 크게 틀었다. 우리는 책상에 엎드려 노래를 들으며 스르륵 잠이 들었다.

한참 뒤.

"유리야, 일어나봐. 잠깐 할 얘기가 있어"

엄마였다.

"민아 엄마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민아는 방학 때 시골 할머니 댁에 가 있게 되었는데. 민아 엄마가 유리 너도 함께 갈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라... 가면 어떨 것 같아?"

"민아 할머니?"

민아는 유리의 가장 친한 친구다. 유리와 같이 영어 학원을 다니고 같은 게임을 한다. 유리는 민아 할머니를 몇 번 뵈어 있다. 충청도에 혼자 살고 계시는데 인자하시고 친절하시다.

"응, 아빠는 2주간 해외 출장을 가야 하고, 엄마도 지금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여서 바쁠 것 같아. 여름 방학 동안에 어디 놀러가기도 어려운데 민아 할머니 댁에 가 있을까?"

엄마의 말소리는 차분했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다. 엄마는 아마 바쁘고 유리를 챙겨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다.

"응... 민아랑 같이 갈게. 민아랑 같이 방학 동안에 영어 뮤지컬 만들기로 했는데 잘 됐어.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 고마워. 엄마가 짐 챙겨 놓을테니 내일 아침에 바로 출발하자."

‘민아 할머니 댁에 가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겠지?’

유리는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유리가 가장 좋아하는 애착인형을 꼭 껴안았다. 유리는 어딘가 불안하고 슬피 졌다.

‘이번 방학에 별일 없겠지?’

유리는 자기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제2화 새로운 곳으로

드디어 민아네 할머니네 댁으로 출발하는 날이다. 아빠와 엄마의 바쁜 일정 때문에 우리는 여름방학 내내 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되었다.

아침에 민아 어머니께 갑자기 전화가 왔다. 민아가 갑자기 다리를 다쳐 جب스를 하고 누워있어야 한다는 거다. 민아는 할머니 댁에 가기 어렵게 되었다.

“유리야, 너 혼자 민아 할머니 댁에 가 있어야 하는데 괜찮을까?” 엄마의 표정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내가 여기서 싫다고 하면 엄마는 엉엉 울어버릴 것

만 같았다.

“나 혼자 갈게. 괜찮아. 방학 때 할머니 댁에서 내 소설
구상하려고 했는데 민아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나는 괜찮은 듯 대답했다.



제3화 평화로운 이곳에서

민아 할머니 택으로 가는 날.

할머니가 살고 계신 마을 풍경은 참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저 멀리 보이는 초록색 높은 산. 넓게 펼쳐진 논과 밭, 논에는 초록색 크게 자란 벼들이 뽁뽁이 솟아 있었다. 새파란 논밭 사이로 작은 개울도 흐르고 있었다. 하늘에는 잠자리가 날아다니고 매미가 왕왕 울어댔다.

마을 어귀로 들어가자 높은 나무가 서있었고, 나무 그늘 아래 넓은 평상에는 할머니 몇 분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이곳은 너무나 조용하고 느리고 평화로워 보였다.

할머니 댁은 큰 대청마루가 있는 오래된 시골집이었다. 지붕은 기와로 덮여 있었고, 기와 끝에는 달랑달랑 금속 덩어리들이 매달려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덩딩딩 낮고 작은 소리가 들렸다. 풍경이라고 부르는, 금속 덩어리들이 부딪쳐서 만들어내는 소리였다.

우리가 할머니 댁에 들어서는 순간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다. 구수한 된장 냄새도 맡을 수 있었다. 할머니가 작은 방에서 메주를 말리신다고 민아에게 들었던 기억이 났다. 우리는 나무 냄새와 된장 냄새를 한번 더 자세히 맡고 싶어 코를 킁킁거렸다.

‘여기는 아파트랑은 전혀 다르네.’

우리는 할머니 댁이 너무 신기하고 새로웠다.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공간이었지만 우리는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이 들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유리야."

할머니는 따뜻한 얼굴로 우리를 반겨 주셨다.

7월 8일

마바 할머니 집에서 저녁때날.

오늘 마바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

여간 여러가지로 서울과 다르다.

매미노리가 많고 들리고 밖에는 어느집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할머니께서는 친구분들이 자주 방문하시고

서울에서 온 집안사람이라 예뻐다 귀찮다

조용함을 해주신다.

오늘은 피곤하지만 오랜만에 기분 좋게

잠자리를 잤다.

제4화 감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민아의 이모가 결혼하기 전에 쓰던 작은 방을 한 달동안 사용하게 되었다.

방에는 작은 침대와 낮은 얇은뱅이 책상이 놓여있었다. 민아 이모는 소설 작가였다. 이곳에서 민아 이모가 추리 소설을 구상하고 멋진 소설을 완성했다고 들었다. 방 한쪽에는 높은 책장이 있었고, 그 안에는 민아 이모가 옛날부터 모아 놓은 것 같은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창문은 작지만 따뜻한 햇살이 깊게 드리워 방바닥을 환하게 비쳤다. 우리는 민아 이모의 작은 방이 마음에 들었다.

할머니 덕의 마당에는 큰 감나무가 있었다. 감나무는 파란 이파리를 잔뜩 매달고 있었고, 이파리 사이로 동그란 감 열매들이 매달려 있었다. 아직 감은 익지 않아 연두색 빛이었지만 동글동글 예쁜 모양이었다. 바람에 감나무 이파리들이 사락사락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풍경이 부딪치는 소리와 나뭇잎 소리가 함께 잔잔한 소리를 만들고 있었다. 우리는 대청마루에 큰 대자로 누워서 감나무 열매를 바라보며 누워있는 것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다.



제5화 방문자

유리가 민아 할머니 댁에 도착한지 3일이 되던 날.

할머니는 저녁에 텔레비전에서 하는 일일 드라마를 보시고 드라마가 끝나면 바로 주무신다. 할머니가 불을 끄고 누우시면 유리도 어김없이 작은 방으로 돌아가서 한시간 정도 자유 시간을 갖고 잠잘 준비를 해야 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왔다. 하루 종일 비가 주룩주룩 와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유리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날씨가 흐리니 유리가 쓰려고 하는 소설의 스토리 구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유리는 여자 주인공이 20세기 중세시대로 회귀하는 내용의 로맨스 판타지 장르의 웹소설을

쓰려고 스토리를 구상하고 있는데, 아직 주인공의 이름만 겨우 지었을 뿐이다.

‘주인공 이름은 내 이름이랑 비슷하게 해야겠어. 유리네 나 유리셀리아. 아니 올리세르티나로 할까? 아무래도 공주 같은 느낌을 내려면 올리세르티나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유리는 민아 이모의 작은 얹은뱅이 책상에 앉아 노트에 여주인공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옆에 정성껏 여주인공 얼굴을 그려 넣었다.

‘머리는 금발로 해야겠어. 아무래도 공주는 금발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 좋아하는 색상은 핑크색, 그래서 주로 핑크색 드레스를 입는 설정을 해야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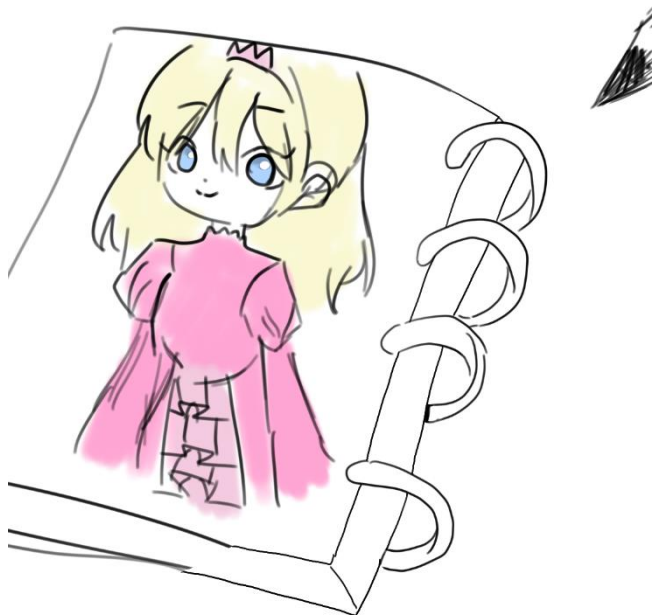
“끼이익”

그 때 유리는 어떤 소리를 들었다.

‘어... 뭐지? 문이 열리는 소리인가?’

유리는 갑자기 온몸이 얼음처럼 얼어버렸다. 웬지 모르게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쉽 호흡을 크게 한 유리는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방문을 쳐다봤다. 방문은 전혀 열려 있지 않았다.



휴우... 숨 호흡을 또 한번 한 유리는 천천히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창문을 올려다봤다. 창문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깜깜했다.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치며 요란한 모양을 만들어 내고 있었지만 할머니 덕 창문은 튼튼해서 시끄러운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휴우... 더 큰 숨 호흡을 한번 한 유리는 고개를 뒤로 돌려 등 뒤에 있는 침대 쪽을 바라봤다. 침대는 아까 있었던 모양 그대로였다.

‘음, 아무것도 움직인 게 없는데 무슨 소리가 난거지?’

유리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다시 소설 구상 노트에 눈을 돌려 여주인공 머리카락을 그리기 시작했다.

‘음... 머리는 라퐁젤 스타일로 탐스럽게 그려야 하는데... 아무래도 긴 머리가 좋겠다.’

“끼이이익”

두번째 들리는 이상한 소리... 유리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번에는 좀 더 길고 날카로운 소리였고, 아까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들렸다.

유리는 팔에 소름이 돋았고 머리카락이 쭈뼛 일어서는

느낌이 들었다.

이번에 들리는 소리는 칠판에 손톱 같은 날카로운 물체가 부딪쳐 그어질 때 나는 끼기직 소리와 좀 비슷했다. 아니면 작은 악마가 사악하게 웃으면서 만드는 요상한 소리 같기도 했다.

‘음...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겠지?’

우리는 무서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핸드폰에 저장된 좋아하는 노래 에고이스트를 들으며 그림을 계속 그렸다.

제6화 불안한 마음

그날 밤.

유리는 사막 한가운데 서 있었다. 달빛이 밝은 캄캄한 밤.

유리는 중세시대의,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어느 전설의 시대에 살던 여전사의 모습이었다. 모래바람이 날카롭게 불어오는 사막 모래밭에 아무도 없이 유리 혼자 서 있었다. 그때 멀리서 말을 타고 한무리의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유리를 죽이려 오는 무리들인 것이 분명했다.

유리는 달렸다. 그런데 사막에서 달리기는 생각보다 쉽

지 않았다. 한걸음 옮기면 발이 쑥쑥 빠졌다. 쫓아오는 무리들의 소리가 더 가깝게 들려왔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도망치려 했지만 마음처럼 빠르게 도망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더 가까워졌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가 들렸다. ‘챙! 챙!’

‘까악!’

우리는 식은 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다. 꿈이었다.

눈을 뜬 우리는 사막이 아니라 민아 이모의 작은 방에 있었다. 온몸이 땀으로 축축했다.



제7화 첫만남

식은 땀에 젖은 채로 숨을 고르던 유리는 그제야 꿈속에서 들었던 날카로운 소리가 낯설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챙! 챙!' 하고 부딪히던 금속성 소리는, 바로 할머니 댁 지붕 끝에 달린 풍경 소리였다. 그 소리가 꿈속에서는 유리를 쫓는 사람들의 칼 소리로 변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꿈속에서 들었던 소리는 그저 풍경 소리만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길고 날카로운, 마치 철판을 굽는 듯한 ‘끼이이익’ 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 소리는 분명 깨어 있을 때도 들었던 소리였다. 유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제 저녁 소설

구상을 하다가 들었던 바로 그 소리.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냥 피곤해서 헛소리를 들은 걸 거야. 게다가 꿈까지 이상하게 꾸고….'

우리는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다가갔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창밖은 아직 칙흑같이 어두웠다. 달빛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썼다. 몸을 웅크린 채로 다시 잠을 청했지만, 이상한 소리는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꿈속에서 들었던 '챙!' 소리가 아직도 귓가를 맴도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무서운 꿈 꿔?”

우리는 너무 놀라서 숨도 쉬지 못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작고 어린 아이의 목소리였다. 우리는 식은 땀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돌아봤다. 작은 아이가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초점 없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일곱살 아니면 여덟 살 정도 되어 보였다. 아이의 옷은 낡았고, 희미한 빛이 손가

락 끝에서 반짝였다.

유리는 아이를 보고 온몸이 경직되어 움직일 수 없었다.

"누... 누구세요?"

"나? 나 민송이야. 민아 누나 동생."

유리는 아이를 보고 갑자기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너... 너... 어떻게 여기 왔어?"

유리는 아이에게 물었다. 아이는 영문을 모르는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원래 여기 있었는데? 누나랑 민아 누나가 어릴 때 맨날 같이 놀았잖아."

유리는 민아가 귀신을 본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났다. 유리는 너무 놀라 말을 잊지 못했다. 아이는 유리를 보며 말했다.

"누나, 나랑 놀아줄 거지? 심심해. 민아 누나는 이제 나랑 안 놀아줘."

아이는 유리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뻗었다. 유리는 너무 무서워 아이의 손을 피해 고개를 뒤로 뺐다.

"누나, 왜 그래? 내가 싫어?"

민송이는 유리의 반응에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유리는 너무 놀랐지만 민송이의 상처받은 표정에 마음이 아팠다.

"민, 민아한테 동생은 없다고 들었는데..."

"에이, 누나가 까먹었나 보지. 나는 민아 누나랑 같이 여기서 놀았는데. 맨날 술래잡기하고, 숨바꼭질하고."

민송은 순진무구한 얼굴로 말했다. 유리는 민송의 모습에서 어떤 악의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놀 친구를 찾는 외로운 아이의 모습이었다. 그 아이의 눈은 쾅하고 깊고 어두워서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그럼... 민아는 어디에 있어? 지금은 왜 혼자 여기 있는 거야?"

"몰라. 민아 누나는 이제 나랑 안 놀아줘. 할머니도, 엄마도, 아빠도 다들 나만 보면 울기만 하고..."

민송의 눈이 살짝 슬퍼졌다. 아이는 여전히 자신이 왜 혼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왜 다들 나를 못 본 척해? 나 여기 계속 있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혼자지?"

민송은 서서히 유리에게 다가왔다. 손을 뻗어 유리의 팔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유리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을 느꼈다. 아이의 손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냉기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민송의 손이 유리의 몸을 그대로 통과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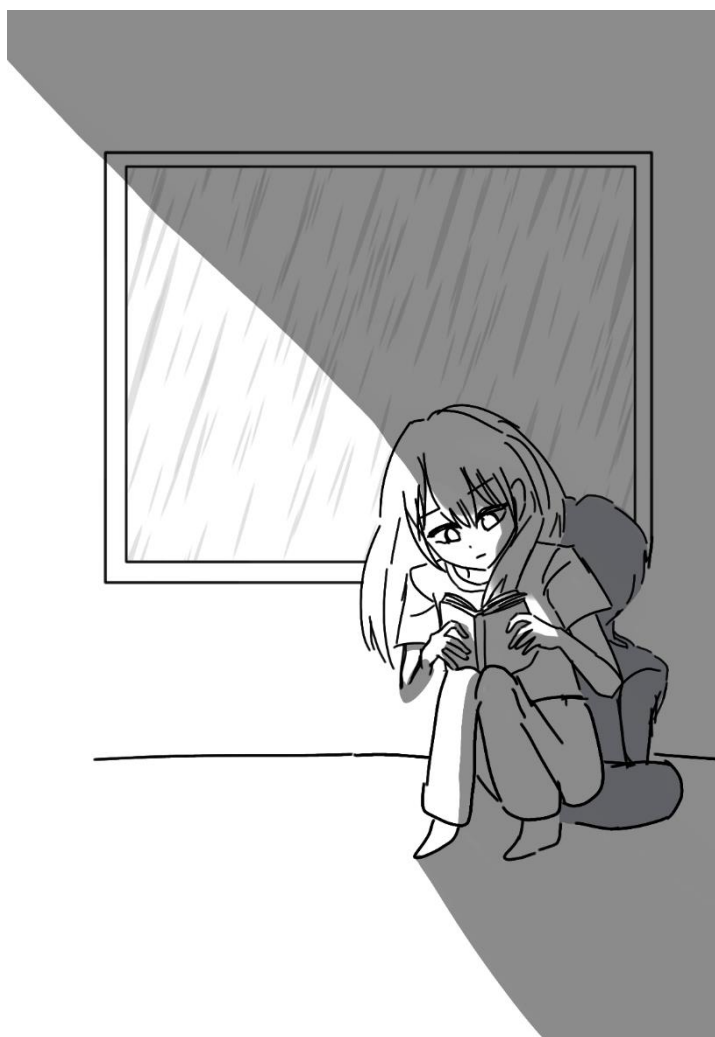
민송은 잡히지 않는 유리의 팔을 보고 당황했다.

"누나, 왜 이래? 왜 나만 못 잡는 거야? 민아 누나도, 얼마도 다들 나만 잡지 못해."

민송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유리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방문 손잡이를 더듬거렸다. 문을 열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민송의 슬픈 눈을 보자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민송은 유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누나, 나는 왜 안 커? 민아 누나는 벌써 키가 이만큼이나 커졌는데, 나는 왜 아직도 그대로야?"

그 순간, 유리는 확신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아이는 자신이 귀신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제8화 비밀은 무엇?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늦게까지 잠에 취해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에 눈을 떴다. 아침밥을 먹으며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비몽사몽한 채로 작은 방을 나섰다.

대청마루에 나가자 할머니가 차려 놓은 따뜻한 밥상이 보였다. 구수한 된장찌개와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 잘 익은 김치들이 먹음직스러웠다.

"유리야, 어젯밤에 혹시 뭐 이상한 소리 못 들었니?"

밥숟가락을 들고 있던 할머니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것 같았다. 할머니의 말씀에 우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요?" 유리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되물었다.

"아니야, 별건 아니고, 그냥 어젯밤에 바람도 없는데 마당에 있는 감나무 잎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아서. 할미가 헛것을 봤나 싶어서 말이지."

유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밥을 먹기 시작했다. 어젯밤 꿈도, 이상한 소리도,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유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식사를 마친 유리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책장으로 다가갔다. 민아 이모의 오래된 책들 중에서 아무 책이나 한 권 꺼내 들었다.

책 표지를 본 유리의 눈이 커졌다. 제목은 《영혼의 그림자》. 표지에는 어두운 숲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서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유리는 자기도 모르게 책을 펼쳤다. 그런데 책의 맨 뒷장, 누군가 손으로 쓴 듯한 글씨가 보였다.

'누나, 나랑 놀아줄 거지?'

빼뜰빼뜰한 글씨체였다. 옆에는 8살 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이 있었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손을 잡고 해맑게 웃

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런데 유리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어제 밤에 만난 그 아이가 바로 그림 속의 아이임을 알아
볼 수 있었다.

제9화 민송이와의 우정

그날 밤 이후, 유리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무서운 꿈을 꾸곤 후, 민송이를 만났고, 민송이의 존재가 꿈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밤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 밖을 보던 유리는 민송이의 기척을 느꼈다.

"누나, 무서운 꿈 꿔?"

민송이는 유리의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유리는 이제 민송이가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짝한 마음이 들었다.

"응, 무서운 꿈 꿔. 그런데 괜찮아. 이제 안 무서워."

유리는 민송이에게 말했다. 민송이는 유리의 손을 잡았다. 민송이의 손은 차가웠지만 유리는 웬지 모르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누나, 저기 봐."

민송이는 창밖의 밤하늘을 가리켰다. 유리가 고개를 돌리자, 창문에 비치는 희미한 빛으로 별자리를 그려주는 민송이의 손길이 보였다.

"저건 사자자리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별자리야. 사자는 용감하고 멋있으니까."

민송이는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유리는 민송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다. 유리는 이제 민송이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놀고 싶어 하는 외로운 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제10화 알게 된 진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불을 정리했다. 오늘 밤이 오기 전에 민송에 대해 무언가 알아내야만 했다. 민송의 정체를 알게 된 이후로 공포는 호기심으로 바뀌어 갔다. 우리는 할머니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 민아 이모한테 혹시... 쌍둥이 동생이 있었나요?"

밥숟가락을 들고 있던 할머니의 손이 멈췄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말이 없었다. 우리는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딱딱하게 굳는 것을 보았다.

"유리야, 밥 먹자. 밥이 식겠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밥그릇을 유리의 앞에 바싹 당겨주었다.

"민아 이모가 옛날에 여기 살 때…."

유리는 더 자세히 물으려다 멈췄다.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더는 묻지 말아라. 너무 아픈 이야기니.

유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친 유리는 방으로 돌아왔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책장으로 다가갔다. 민아 이모가 소설가였으니, 어쩌면 민송에 대한 이야기가 이 방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높은 책장 맨 위,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유리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상자 안에는 빛 바랜 사진들과 낡은 공책들이 가득했다. 그중 유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낡은 그림 일기장 한 권과, 함께 꽂혀 있는 한 장의 사진이었다.

유리는 그림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처음 몇 페이지에는 민아와 민송이 함께 손을 잡고 해맑게 웃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행복한 아이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일기장의 뒤로 갈수록 그림이 점점 어두워졌다. 색연필로 그린 밝은 색깔들은 사라지고, 검은색과 회색의 그림이 많아졌다. 마지막 장, 색연필로 그린 한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그림 속에는 감나무 아래에서 한 남자가 민송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선생님이 나랑 놀아주겠다고 했어. 근테 선생님 얼굴이 슬퍼 보였어.'



우리는 그림 일기장을 덮고, 함께 발견한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사진 속에는 민아 이모와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고, 남자는 민송의 그림 일기장에 있던 선생님과 똑같이 생겼다. 사진 뒷면에는 잉크가 번진 글씨로 '사랑하는 내 딸, 그리고 사위와 함께'라고 쓰여 있었다. 우리는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가 왜 그토록 아파하는지, 그리고 왜 민송이 그토록 슬픈 눈을 하고 있는지.

민송의 엄마와 선생님은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할머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다. 그 상처 때문에 민송의 엄마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선생님은 복수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분노 때문에 이성을 잃고 민송이에게 화풀이를 하다가 민송이가 머리를 부딪쳐 죽게 된 것이다.

우리는 사진 속 행복했던 민송의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사진 속 웃는 얼굴들이 마치 민송처럼 슬픈

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제11화 대면

우리는 민송이의 일기장을 들고 선생님의 집을 찾아갔다. 선생님은 우리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선생님, 민송이 기억하시죠? 저와 민송이가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선생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였다. 민송이가 선생님의 뒤에 나타났다.

"선생님, 저 보고 싶으셨죠?"

민송이의 목소리가 들리자 선생님은 비명을 질렀다. 선

선님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끼이이익"

"팡!"

선생님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우리는 너무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민송이는 우리의 옆에 다가와 말했다.

"누나, 왜 울어? 선생님이 나뻤어. 나는 선생님한테 혼나서 아팠어."

민송이의 말에 우리는 선생님이 민송이를 때렸다는 것을 어림없이 짐작할 수 있었다.

퇴원한 선생님은 민송이를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민송이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과거를 후회하며, 민송이를 완전히 없애 버리려고 했다. 선생님은 악마에게 영혼을 판 것처럼 제 정신이 아니었고 살기 띤 눈과 흥측한 모습으로 변한 채 할머니 댁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

"민송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너 때문에 내

사랑이 사라졌어! 이제 너도 제발 사라져라!"

선생님은 비웃으며 또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지르며 절규했다. 우리는 선생님의 광기 어린 표정이 너무나도 공포스러웠다. 또 우리는 선생님이 할머니 집에 불을 질러 할머니가 다치실까봐 너무나도 무서웠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민송이와 할머니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이 집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기도 했다. 우리는 커다란 나무 빗자루를 힘차게 휘둘러 선생님의 뒤통수를 때렸다. 선생님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털썩 쓰러졌다.

우리는 선생님에게 민송이가 얼마나 외롭고 슬펐는지 이야기했다.

"선생님, 민송이는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민송이는 그저 선생님이 왜 자신을 싫어하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송이는 선생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민송이는 선생님을 사랑했어요!"

"시끄러워! 네가 뭘 알아! 나는 사랑을 잃었어.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선생님은 괴성을 지르며 유리의 말을 무시하고 불을 지르려고 했다. 마당 한 켠 지푸라기 더미에 불이 옮겨붙었다.

그 때 민송이가 나타났다.

"선생님,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는 선생님을 사랑했어요."

민송이는 선생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민송이의 눈물은 뜨거웠다. 선생님은 민송이의 눈물에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 때였다.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희미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달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연기로 변해 불길을 향해 흘러내렸다. '쉬이익-'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들은 힘을 잃고 서서히 꺼져갔다. 순식간에 집은 불타버리는 대신, 달빛 연기로 가득 찬 신비로운 공간이 되었다.



선생님은 눈을 감았다. 눈을 감자 과거의 기억들이 영화 필름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어린 민송이와 함께 웃던 순간들, 민아 이모와 사랑을 나누던 순간들, 그리고 자신이 민송이의 눈물을 보며 행복했던 순간들. 민송이의 눈물이 그의 손에 닿았을 때 느꼈던 따뜻함이 그의 마음속까지 스며들었다.

"저는 선생님이 다시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민송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따뜻하고 편안한 목소리였다.

선생님은 눈을 떴다. 불길은 사라졌다.

제12화 이제는 안녕

민송이는 유리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몸은 달빛을 머금은 듯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투명한 그의 모습은 아침 안개처럼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다.

"누나, 고마워요. 이제 안 무서워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민송이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부드러웠다. 그는 유리를 향해 마지막으로 활짝 웃어 보였다. 그 웃음은 유리가 민송이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는 완전히 다른, 진정한 해방감과 기쁨이 담긴 것이었다.

"안녕, 누나."

그의 마지막 인사가 귓가에 맴돌자, 민송이의 몸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따스한 기운과 함께 사랑이는 감나무 잎뿐이었다. 유리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사랑받는 기억을 안고 떠난 친구를 위한, 행복한 이별의 눈물이었다. 유리는 마당에 서서 민송이가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귀신이 아니었다.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제13화 새로운 시작

남은 여름 방학 동안 유리는 평화롭게 지냈다. 민송이의 슬픔이 가셨기 때문일까, 유리는 더 이상 밤마다 무서운 꿈을 꾸지 않았다. 할머니의 낡은 시골집은 더 이상 낡은 공간이 아니었다. 매미 소리가 친구가 되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잎 소리가 자장가가 되었다. 유리는 매일 대청마루에 누워 낮잠을 자거나, 앓은뱅이 책상에 앉아 새로 구상한 소설을 썼다. 이제 주인공의 이름은 ‘유리’ 그대로였다. 더 이상 복잡하고 무거운 이름이 필요하지 않았다.

방학이 끝나갈 무렵,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유리야, 내일 아침에 아빠랑 엄마가 데리러 갈게. 그동안 할머니 귀찮게 안 하고 잘 지냈니?"

"응, 엄마. 잘 지냈어."

"그래, 내일 보자."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바쁘게 들렸지만, 어딘가 모르게 안심하고 있는 듯했다.

다음 날, 엄마와 아빠가 할머니 댁에 도착했다. 엄마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유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는 엄마에게 그동안 유리가 얼마나 씩씩하고 밝게 지냈는지 이야기했다. 엄마는 그런 유리를 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엄마. 나, 소설 쓰고 싶어. 나만의 소설."

차에 올라타 서울로 향하는 길, 유리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엄마는 잠시 운전석을 돌아보며 유리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더 많이 신경 썼어야 하는데, 미안해. 네가 혼자 외롭게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했어."

엄마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유리는 그런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나 이제 외롭지 않아. 그리고 엄마가 바쁜 것도, 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괜찮아."

유리의 말에 엄마는 눈물을 글썽였다. 꼭 쥐어진 엄마의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다.

서울에 도착한 유리는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유리는 노트북에 새 소설의 첫 문장을 써 내려갔다.

'유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